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4>임종할 때 무심해야

중생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움직여서 분별된 알음알이를 일으키니, 중생의 모습을 취하면 범부에, 부처님 경계에 집착하면 성인이라는 분별된 상을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중생의 잘못된 병통으로서 자기 경계에 집착하여 참된 공부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범부의 알음알이를 없애 주려는 방편으로 먼저 성인의 깨달음을 내세우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범부와 성인 이 두 가지 모두는 중생의 분별심일 뿐 '그 실체는 공(空)이어서 본디 결정되어 있는 성품은 없다'라는 중도 법문을 설하셨다. 중생의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알음알이가 사라지면 이 알음알이와 마주보는 성인의 깨달음도 저절로 사라져 일체 분별이 사라진 무심도인(無心道人)이 되기 때문이다.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아직도 중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육도에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가귀감> 74장에서 말한다.

凡人 臨命終始 若一毫毛 凡聖情量不盡 思慮未忘 向驢胎馬腹裡托質 泥犁鑊湯中煮煠乃至 依前再爲蠉蠕蚊虻.

누구이든 임종할 때 털끝만큼이라도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나귀나 말의 뱃속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지옥의 기름 끓는 가마 속에 처박히기 쉬울 것이며, 개미나 모기 같은 몸을 받게 되기도 할 것이다.

중생의 견해가 범부나 성인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변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가 지은 업의 그림자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범부의 알음알이는 버리고 성인의 깨달음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불을 피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다. '범부의 알음알이'와 '성인의 깨달음'이란 마음으로 분별하여 만든 마주보는 개념으로서 모두 변견(邊見)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변견이란 시비 분별로써 한쪽에 치우쳐 자기 주장만 하는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이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려면 범부의 알음알이에서 실체가 없다는 공성(空性)을 보고, 마찬가지로 성인의 깨달음도 공성(空性)임을 깨달아, 범부와 성인 양쪽에 대한 집착을 다 벗어나야 한다. 이것

범부든 성인이든 양쪽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야
무심중도하면 지옥이 나타나도 두려운 마음 없어

이 모든 집착을 벗어나는 무심중도(無心中道)이다.

이렇게 모든 집착을 벗어나 무심할 수 있다면 저절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 경계를 따라 가고 올 것이 없는 본디 성품을 지니게 되어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부처를 보아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이 나타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그것은 다 헛된 경계이니 이 경계의 실체는 본래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범부의 알음알이가 남아 있어 성인의 깨달음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경계를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이 잘못으로 육도에 윤회하다 지옥이나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白雲云 設使一毫毛 凡聖情念淨盡 亦未免入驢胎馬腹中 二見星飛 散入諸趣.

백운(1025~1072) 선사가 말하기를 "한 티끌 남아 있던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생각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직 나귀나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두 소견이 번뜩이면 육도 윤회에 들어가리라.

두 소견이라 함은 마음속에 주객(主客)이 남아 있는 생각을 말한다. 생각하는 주체인 주(主)와 대상으로서 객(客)인 생각을 내세우는 분별심을 아직 끊지 못한 것이다. 한 티끌 남아 있는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생각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주객으로 나누어진 두 소견이 번뜩이는 것이다. 이는 아직 미세하고도 미세한 내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 업의 뿌리인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므로 육도에 윤회할 수밖에 없다.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업연(業緣)이 커져 뒷날 얼마든지 나귀나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중생의 생사는 세찬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모든 번뇌를 단칼에 끊어 없앨 수 있는 보배로운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烈火茫茫 寶劍當門.
세찬 불이 활활 이니
보배 칼이 번쩍인다.

세찬 불이 활활 인다는 것은 번뇌가 끝없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이 번뇌들을 단숨에 끊어 없애자면 공성(空性)임을 아는 보배 칼과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보배 칼과 같은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시비와 분별을 떠나 있는 무심을 말하고, 이 무심이 바로 도에 계합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깨친 사람은 모든 시비와 분별이 사라졌으므로 헛된 생각이 없어 무심하다. 서산 스님은 이 내용을 풀이하여 말한다.

此二節 特開 宗師無心合道門 權遮 教中念佛求生門. 然 根器不同 志願各異 各各如是 兩不相妨 願諸道者 平常隨分 各自努力 最後刹那 莫生疑悔.

이 두 구절은 수행에 뛰어난 종사(宗師)들이 무심으로 도에 계합하는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을 특별히 보여줌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에서 염불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염불구생문(念佛求生門)을 방편으로 막아 놓았다. 그러나 공부하는 바탕이 다르고 뜻과 원력이 달라도 저마다 옳은 점이 있어 서로 방해되지 않으니, 바라건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소 제 분수에 맞춰 저마다 노력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공부에 의심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산 스님의 이 풀이는 무심한 경계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생은 바탕이 다르고 뜻과 원력이 제각기 달라도 저마다 옳은 점이 있으므로 이것만 이해한다면 공부에 조금도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연에 따라 염불하여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찰나에도 오직 일념으로 염불을 해야 한다. 숨이 끊어질 마지막 찰나에 참선하던 사람이 참선을 의심하고 염불을 한다거나, 염불하던 사람이 염불을 의심하고 참선 못한 것을 뉘우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공부이든 한번 믿고 시작했다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밀어붙여야 효험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공부이든 바르게 한번 믿었다면 분별심을 내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결실을 얻는 공부, 이것이야말로 무심 도리라고 할 만한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는 산스크리트어의 아눗타라삼먁삼보디(anuttara samya-sambodhih)를 한문을 번역했을 때 소리 나는대로 음사한 말이다. 줄여서 아뇩삼보리, 아뇩보리 라고도 한다. 뜻으로 풀이한 말이 바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의역하기도 했고,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 무상정변지(無上正遍知)라고도 의역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혜로 위없이 뛰어난, 바른 평등원만이란 뜻이다. 부처님의 최상 절대의 완전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더 이상의 수승한 경지가 없는 평등원만한 깨달음을 표현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연기즉공(緣起卽空)의 도리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연기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공의 논리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느니라'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법은 세상만사가 모두 자성이 없이 연기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연기하는 것은 곧 공이다. 이러한 법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부처님, 그 이상의 진리는 없기에 무상정등각의 의미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쓰는 것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이자 법의 내용을 함축해 의미하는 말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6>

예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세상에 어떤 왕이 거문고 소리를 듣고 몹시 즐거워 대신들에게 명령했다.

'매우 사랑스럽고 즐길 만한 소리로구나. 저 소리를 가져오너라.'

명령을 받은 대신들은 곧 거문고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바로 그 좋은 소리를 내는 거문고입니다.'

'내게 거문고는 필요 없다. 아까 듣던 그 사랑스러운 소리나 가지고 오너라.'

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나, 예화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 불경에서는 긴 스토리가 있는 예화까지 '비유'에 포함시키나, '줄거리가 갖추어진 이야기'란 특성이 있다는 것에서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 부처님이 전생과 현생에서 만났거나 내생에서 만날 사람들과 얽힌 인연담도 비유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예화로 나눌 수 있다. 부처님은 교화 과정에서 예화 속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함으로써 내담자가 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부처님은 '예로 드는 이야기'로 설법 쉽게 이해시켜
증상에 맞게 서적을 읽어주는 '독서치료'가 좋은 예

'거문고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자루도 있고, 바탕도, 여(麗)도, 줄도, 가죽도 있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탈 때에 여러 가지 기구의 인연으로 비로소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 없이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요, 사라져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왕이 탄식했다.

'그런 거짓 물건을 어디에 쓸 것인가? 거문고란 거짓 물건이다. 그런데 사람을 빠지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부수어 버려라.'"

오온(五蘊)이란 인연 따라 생긴 것이며 덧없는 것임을 예화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예화(例話)란 예로 드는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내담자의 이해와 통찰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앞회에서 살핀 비유는 상황 등에 견주어 상

현대 심리상담에서도 새로운 이론과 기법을 구축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동원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프로이트가 어릴 적 부모와의 성적인 갈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인용한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신화다. 이제는 신화 자체보다 프로이트의 이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론 설명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예화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통찰을 이끌기 위해 예화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치료 분야도 있다. 내담자의 증상에 맞는 각종 동화나 문학 등을 읽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독서치료'가 그것이다. 이는 문학이 치료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대불총 제1회 호국불교 대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와 불교도의 자세

국가의 총제적 난국과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할 호국호법정신을 깨우쳐 봅시다

"대불총"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전통인 "호국호법"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시대 정치인들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있는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되찾고자 합니다.

오늘의 국가위기에 대하여 한국의 불교계가 속수무책이거나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것은 승가를 비롯한 불교공동체가 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뭉쳐진 10개의 惡이, 흩어진 萬個의 善을 축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불총은 불교계의 모든 뜻을 모아 진정한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파사현정과 우국충정의 원을 세우신 불교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2-733-121137 박희도
●농 협 360-02-106901 박희도

■ 일시 : 2007. 6. 27(수) 14:00~17: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토론회 프로그램]
● 개회식 (이건호 / 공동회장)
국민의례, 삼귀의례
● 개회인사 (박희도 / 임대표공동회장)
● 기조강연 (한승조 / 前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의 호국불교와 민중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발표 및 토론 (이석복/예 육군소장)
_제1주제 : 불전을 통해 본 호국호법의 원리
발표자 – 김덕수(재원스님)
_제2주제 : 붓다의 자유 평등과 현대민주주의
발표자 – 정천구(영산대 교수)
_제3주제 : 남북한 불교교류 현황에 관하여
발표자 – 김영국(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_토 론 자 : 김광식(부천대 교수)
윤세원(인천전문대 교수)
_종합토론 및 폐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TEL.02) 2266-3760 http://nabuco.org

상임대표공동회장 박희도(전 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철회 김홍래 박일룡 송재운 안병태 이건호
이종구 이희자 정인악 정진태 최기덕 최명준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